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88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年 2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韓·日 兩國의 學校暴力 失態分析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孝 姃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韓·日 兩國의 學校暴力 失態分析에 관한 硏究

Study on the analysis of school violence reality in Korea and Japan

2015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孝 姃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韓·日 兩國의 學校暴力 失態分析에 관한 硏究

指導敎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孝 姃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李孝妊의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朴靑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仁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丁意祥 印

2014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目　　次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2장 본 론 ····· 4

제1절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 ····· 4

1. 학교폭력의 정의 ····· 4

2. 학교폭력의 발생배경 및 유형 ····· 5

3. 학교폭력의 원인과 특징 ····· 7

제2절 한·일 양국의 학교폭력의 현재 실태와 대응체계 ····· 11

1. 한국의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 11

2.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 22

3. 한·일 양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공통점과 상이점 ····· 41

제3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 42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의 체계화 ····· 42

2. 학교폭력의 환경적요인 개선 및 지역연대 강화 ····· 45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강화 ····· 48

제3장 결 론 ····· 50

참고문헌 ····· 5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表 目 次

<표 1>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 5
<표 2> 학교폭력의 유형 ····· 6
<표 3>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12
<표 4> 사이버공간 피해 응답률 ····· 15
<표 5>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 ····· 22
<표 6> 학생 간 폭력의 사례 ····· 23
<표 7> 대인 폭력의 사례 ····· 23
<표 8> 재물 손괴의 사례 ····· 23
<표 9> 폭력 행위 발생 건수 ····· 27
<표 10> 교내 폭력사건의 검거·보도 인원 ····· 29
<표 11>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 검거·보도 인원 ····· 30
<표 12> 이지메의 발생 상황 ····· 34
<표 13> 이지메관련 사건의 검거 및 보도인원 ····· 35
<표 14>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대처 활동 ····· 3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圖 目 次

<그림 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11
<그림 2> 남녀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 12
<그림 3>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 13
<그림 4>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 14
<그림 5> 학교폭력 피해 장소 ····· 14
<그림 6> 학교폭력 피해시간 ····· 15
<그림 7> 학교폭력 피해 신고율 ····· 16
<그림 8>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 16
<그림 9> 학교폭력 집단 가해 응답률 ····· 17
<그림 10> 학교폭력 가해 이유 ····· 17
<그림 11> 학교폭력 가해 중단 이유 ····· 18
<그림 12> 폭력 행위 발생 건수의 추이 ····· 25
<그림 13> 1,000명당 폭력 행위 발생 건수 ····· 26
<그림 14> 이지메의 발생 건수의 추이 ····· 32
<그림 15> 이지메의 1,000명 당 발생률 ····· 3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Study on the analysis of school violence reality in Korea and Japan

Lee hyo-jung
Advisor : Prof. In-Hyun Kim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constant occurrence of the events, both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that threaten the safety of students, who need to be sound and healthy, such as bulling, verbal violence, cyber assaults, and etc.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trying to stop school violence with great efforts, the aspect of school violence is getting grouped, low-aged, and organized, and it even leads some students to commit suicide.

To solve schoo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paid great attention and searched for coping ways of school violence, starting with 2012 『Way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to 2013『School-centered Way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 believe, to solve this problem, not only do we have attentions on the management or penalty after the events of school violence, but also need to have a long-term point of view so that we can analyze the causes and change the psychological attitudes and perspectives of student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will search for good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suit us, by focusing on the cases of Japan, the nation that has suffered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and studied for the aspect of school violence and measures, more than 30 years ahead of Korea.

I want this study to find good preventive measures and ways to foster a safer school life culture and be a step for an effectiv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formation of better school cultu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외부 요인에 의해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3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최○○(15살)군의 사건은(매일경제 2013년 3월13일)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에 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도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점점 저연령화, 집단화, 조직화 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수립을 비롯하여 2013년의 현장 중심 학교 폭력 대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계속되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피해 응답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교폭력의 피해 형태가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정서적·심리적 폭력으로 형태가 변해 갈 뿐이지 피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청소년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민감하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Erikson(1950)[1)]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소년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이며,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의 확립을 찾는 시기라고 기술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간의 즉,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간의 관계 및 역할이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원인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져 있거나 가정환경, 입시문제 등으로 국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교의 문화 및 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학교폭력 또한 그 형태와 흐름이 바뀌어 간다. 최근의 학교폭력이 사이버 폭력으로 형태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그에 대한 한 예 이다. 이 또한 새롭게 대책과 예방법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폭력에 대처와 예방을 다양한 방법들로 시도해 본 선진국의 연구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한국 보다 십수 년 전에 이미 학교폭력 및 이지메를 겪어 온 국가 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여러 대응체계와 예방법 등을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참고하여 바르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 폭력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흐름과 사회 문화 흐름과 유입에 따른 폭력유형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이에 따른 다양한 원인들을 각 개인에게 찾기보다 사회의 흐름과 문화의 변화 및 가정과 사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

셋째, 한·일 양국의 학교 폭력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가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교폭력의 발생과 그 현황에 대한 원인과 대처 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교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토대로 하여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물, 국내외 서적, 학술지, 간행물 등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학교 폭력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활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학교폭력현황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연구 된 논문이 金恩英(1997), 한현규(1996), 류보순(2006) 등 여러 편이 있으나 한국의 실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 우리보다 30년 이상이나 먼저 학교폭력과 이지메(집단 따돌림)에 관하여 연구를 해 온 일본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다지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의 학교폭력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 한·일간의 학교폭력 현황과 대처방안 분석하여 최근의 학교폭력의 현황과 상태에 대해 알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둘째, 선진국인 일본의 학교 폭력 실태와 대처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봄으로써, 학교 폭력의 예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학교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점들과 현재 한국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알아보아 보다 나은 학교 현장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본 론

제1절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 괴로움 손해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학적 공격 또는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학교 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다.

<표1>의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의 특징으로는 신체 정신 재산 등 3가지 영역에서의 피해를 특정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그리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학교폭력의 개념에 광범위한 폭력범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James Marcia(1980,1994)[2)]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 혼미, 정체성 상실, 정체성 유예, 정체성 확립 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이며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 가는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더욱 쉽게 분노하며 화를 내기도 하고 오해하여 충동적이고 격한 감정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가진 경향성을 가진 청소년들 모두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심리적·정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

2) Marcia, J. E. (1980). Ego identity development.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bology. New York: Wile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의 발생배경 및 유형

학교폭력의 발생 배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인터넷이나 게임을 통해 폭력을 재미 삼아하고 폭력 충동과 폭력행동을 통한 쾌감과 스릴을 느끼게 되는 요인

② 학생 인권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 하락의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학교 폭력의 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결과를 학교나 선생님들에게 돌리려는 사회 풍조

③ 기성세대의 문제해결 방법이 폭력 또는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요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④ 개인 이기주의 및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자유에 따른 책임의식 보다는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사회 풍조

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 현상과 결손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임적 부모 양육 태도

⑥ 과거의 다자녀 가족 유형의 소통 기능이 아닌 1~2명의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과잉 보호적 부모양육태도

⑦ 교육자들의 일부가 학생들의 본이 되지 못한 행동

⑧ 극단적인 교칙 위반에도 중학생의 경우 퇴학이나 각종징계의 부족함

⑨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 또는 자퇴하여야 하는 풍조[3)]

학교폭력은 신체 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유형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학교폭력의 유형[4)]

유형	학교 폭력 예방법 관련	예시 상황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나 유인	상해: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행위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약취: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데려가는 행위
언어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경우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인터넷 상에 올리는 행위 협박: 신체에 해를 끼칠 뜻한 언행등과 문자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금품 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 없으면서 돈이나, 옷 문구류 등을 요구하는 행위

3) 이현림 외, “학교폭력의상담의 이론과 실제”(한국학술정보, 2012), p.1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	강제적 심부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나 심부름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
성폭력	성폭력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성적 모멸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특정인에 대한 인터넷 등에 올리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사진 등을 SNS 나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의 원인과 특징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 행동에서만 찾기에는 현재 한국의 아이들은 너무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다. 이미 어른들의 가치관에는 요즘 아이들의 행동 언어 습관 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며, 대화에는 욕설이 교실에서도 선생님들과 사회에서 어른들에게 조차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보다 먼저 경제적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미 학생들 사이의 폭력, 이지메(집단 괴롭힘), 교사에 대한 폭행 등의 여러 문제로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교권에 대한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은 그저 앞만 보고 진행 된 산업화와

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북” (교육부,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현대화에 따라 경제력이 세계10위권에 진입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이 겪는 선진국병을 앓게 되었다.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가족의 해체, 물질만능 주의, 어른에 대한 존경과 권위 훼손,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률 증가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은 실종 된 것이다.

또한 학교와 사회적 교육적 기능이 약화 되었다.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세대간의 소통이 부족해지고 어른을 공경하는 기능의 약화가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학교가 갖아야 할 본래의 교육적 사회적 기능은 약화 되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 또한 해체되고 이로 인해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Buckner와 그의 동료들[5]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은 부모의 관심 즉 부모가 감찰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발달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보이며 가정이 해체 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부모의 태도로 인해 부모의 양육과 감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기조절 능력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가정의 약화 된 기능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교육 또한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더 좋은 상급 학교의 진학이 목적이 되었고, 그것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높여 이익을 얻고자하는 학교조차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목적 위주의 입시교육 때문에 기본 예의와 바른 품성들의 덕목 보다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최고로 여기는 학교 풍조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정과 지역 공동체 등의 위기 학생들을 위한 안전 관리망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최근의 위기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등으로

5) Bucker, J. C., Mezzacappa, E., & Beardslee, W. R. (200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정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하고 돌보아 주는 관리망이 상당히 부족 한 편이다.[6)]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특징을 학생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학교의 지도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제멋대로의 생활을 좋아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다. 자기 과시욕이나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 책임감, 자제심, 인내력 등이 떨어진다.

둘째, 학습 의욕이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력이 낮다. 또 학업 목표와 미래의 전망이 떨어지며 막연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예전부터 태학, 수업 방해, 무단 외박, 가출, 흡연, 폭력 행위, 절도, 시너 남용 등의 문제 행동을 보여 왔다.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을 일으킨 학생의 경우에는 비행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넷째, 몇 명의 집단을 만들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비행 집단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학생 간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비행 집단을 만들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두드러지지만 교사에 대한 폭력의 경우에는 비행 경력의 졸업생과 교외의 비행 집단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중학생에 의한 사건에 이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교내 폭력 사건을 일으킨 학생의 가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발견 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양육 태도가 방임, 응석, 과잉보호이다.

둘째, 부모가 자식 교육에 자신을 잃고, 교육열이 떨어진다.

셋째, 어머니는 교육에 열심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고 있다.

---

6) 천세영 외,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촉력의 예방과 대책” (학지사, 2014), p.54~6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넷째,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음주, 어머니의 가출 등 가정 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섯째, 교사에 대한 폭력을 일으킨 학생의 가정은 특히 방임하는 경향이 강하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이 많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의 특징이다. 교내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첫째, 도시화에 따른 주변지의 주택 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사회의 주민의 연대감이 결여되어 있는 지역이다.

둘째, 지역 주민의 변동에 따른 신구 주민 간 교육관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지도 체제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사들 사이에 학생 지도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규제와 금지 지도에 치우치기 쉽고 주의를 주는 방법이 학생의 감정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소한 폭력을 안이 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지도를 하지 않는 바람에 더 큰 폭력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위원회 또한 여러 지도에 나서고 있으나, 그 중에는 교내 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 위원회의 지도가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지도 조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 교직원의 연령 구성에 치우침 등이 있어서, 교내의 지도 체제를 갖추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적지 않아 인사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보인다고 전했다.[7)]

따라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문제점을 하나의 특징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각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학교의 공동의 문제로 분류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문부성 초등 중등 교육 국장 “학생의 학교 폭력 등의 비행 방지에 대해” 글 제314호(198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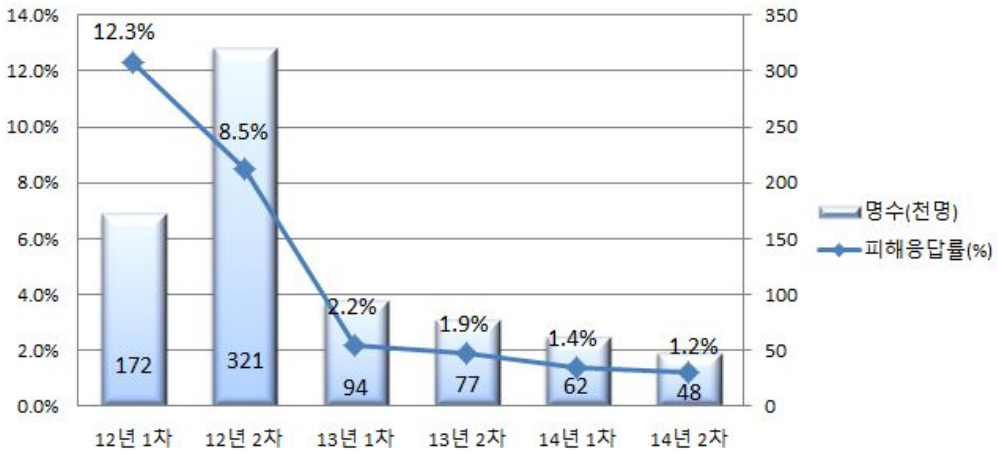
제2절. 양국의 학교폭력의 현 실태와 대응체계

1. 한국의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한국의 학교 폭력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시· 도교육감 협의회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 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른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 조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4년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1. 한국의 학교폭력의 실태

다음은 교육부와 전국 시· 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34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인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효과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그림 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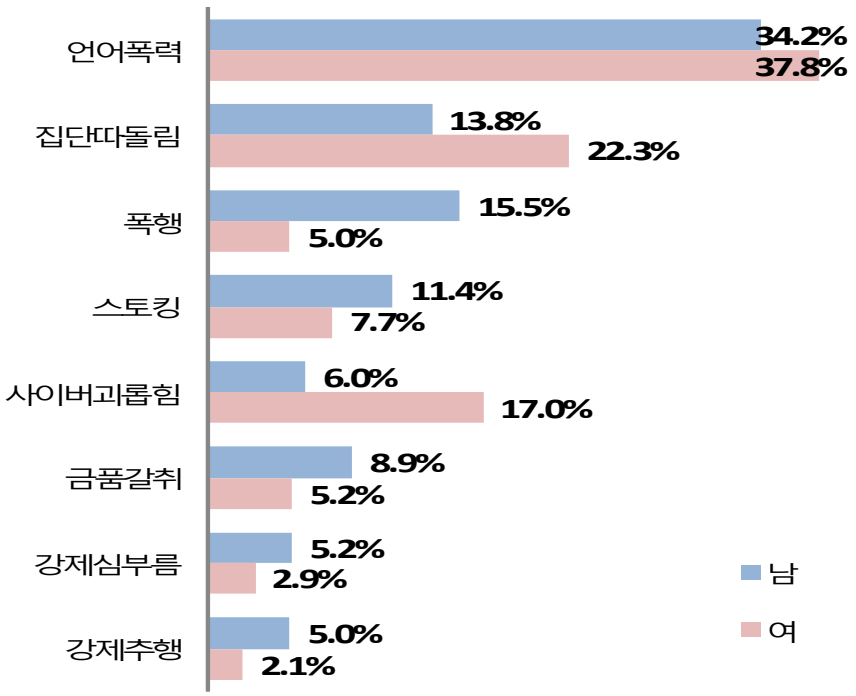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피해 응답률(%)	12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	13년 2차	14년 1차	14년 2차
초	15.2	11.1	3.8	2.7	2.4	1.8
중	13.4	10.0	2.4	2.0	1.3	1.1
고	5.7	4.2	0.9	0.9	0.6	0.6

<표 3>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8천명, 피해응답률은 1.2%로, 14년 1차 대비 0.2%p 13년 2차에 비해 0.7%의 감소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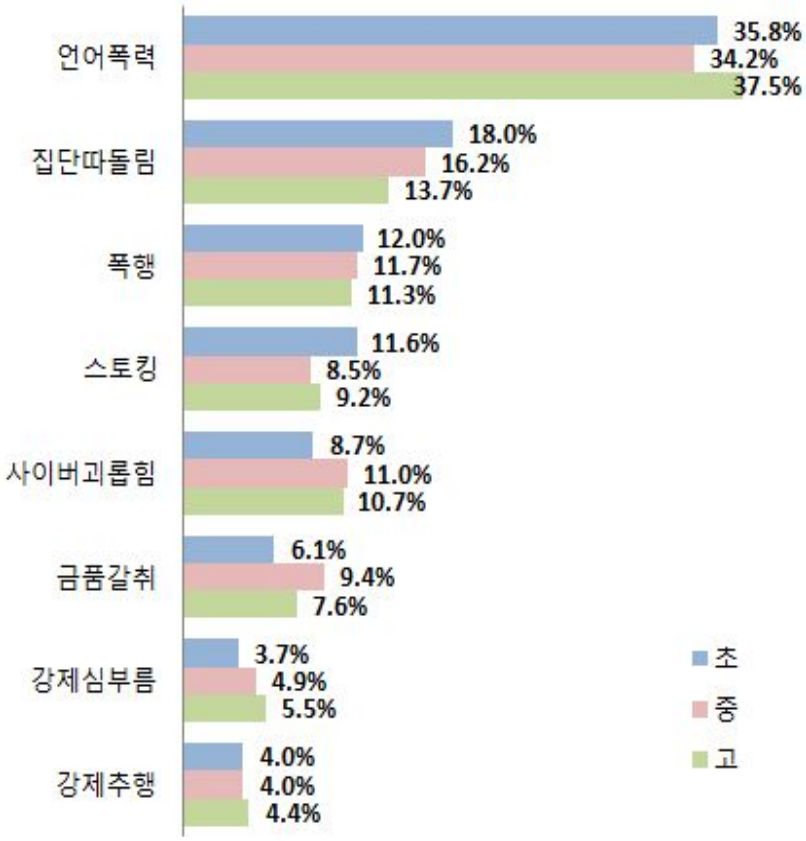


<그림 2> 남녀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남녀별 피해 유형별[8] 로는 남학생은 폭행, 스토킹, 금품갈취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고,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피해유형 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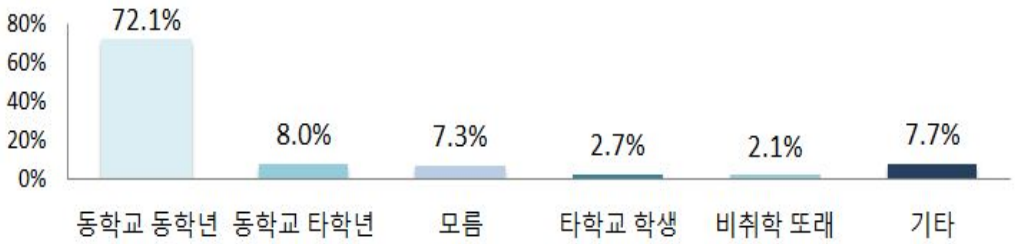
<그림 3>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그림 3>에 따르면 학교급별 피해유형[9] 비중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뺀 나머지 중 초등학생은 스토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은 금품갈취 및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중복응답자 수를 포함 한 조사 결과 이다.
9) 중복응답자 수를 포함 한 조사 결과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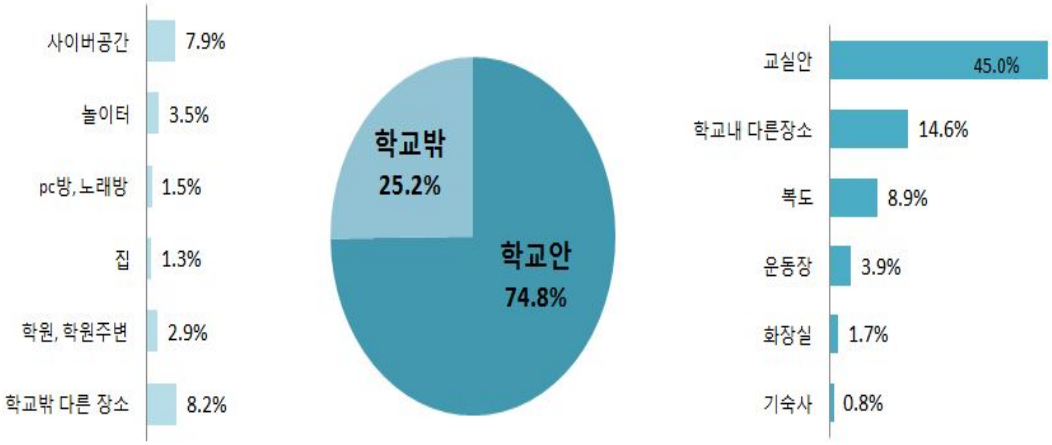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14년 1차 조사 대비 3.1%증가 하였으며 13년 2차 조사에 비해서는 1.2%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내에서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학교폭력 피해 장소

전체 피해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피해의 비율은 7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실 안에서의 피해 발생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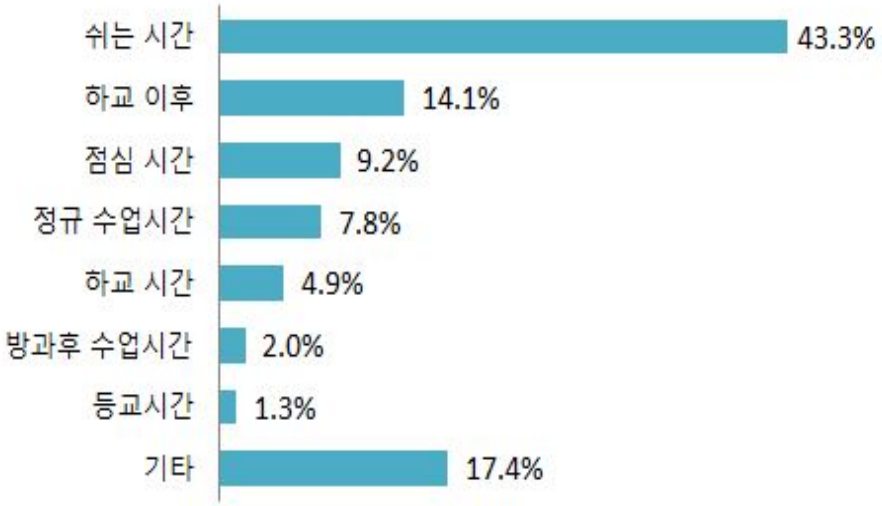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률 또한 45.0%의 비율로 다른 장소 보다 월등히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사이버공간 피해 응답률

피해 응답률 (%)	13년 1차	13년 2차	14년 1차	14년 2차
초	4.9	6.6	4.8	6.2
중	10.2	9.9	11.2	9.8

또한 최근의 학교 폭력의 또 다른 유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 피해응답 에서는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응답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응답 비중은 13년 2차 조사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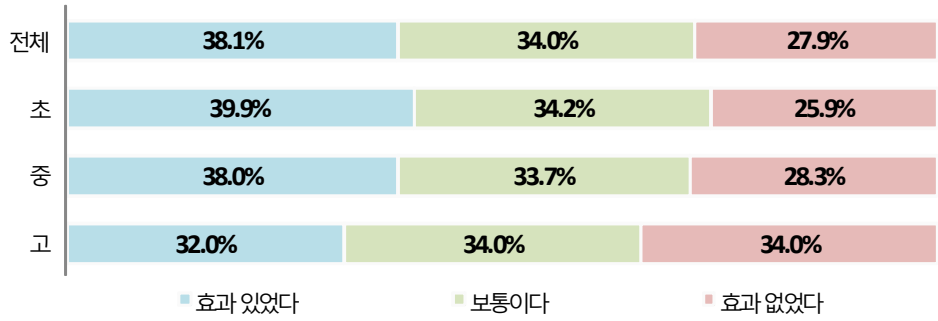


<그림 6> 학교폭력 피해시간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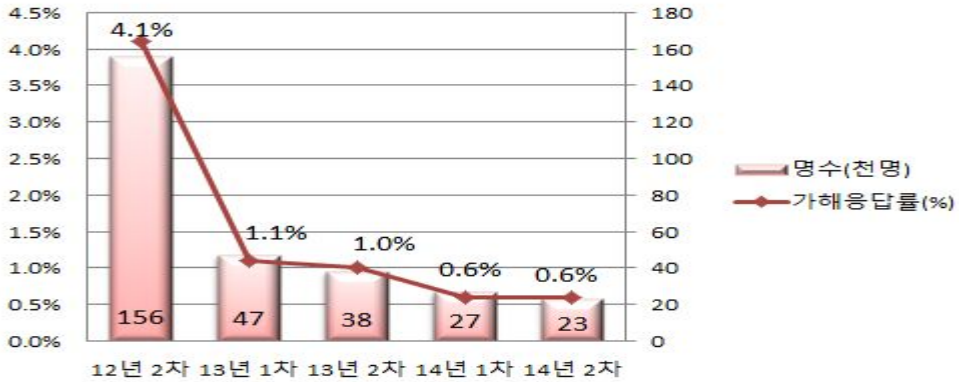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과 하교 이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 수업 시간 등 일과시간 중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7> 학교폭력 피해 신고율

피해 응답자의 78.3%가 피해 사실을 가족(31.3%), 학교(24.9%), 친구나 선배(18.3%), 117 상담센터(3.8%)에 알렸고, 14년 1차 조사 대비 학교의 비중은 3.0%증가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중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8.1%로, 1차 조사대비 4.2% 증가하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신고가 효과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남 40.6%, 여 34.7%), 학교급이 낮을수록 신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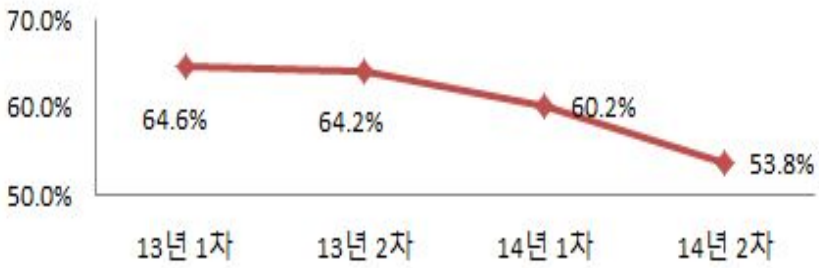


<그림 8>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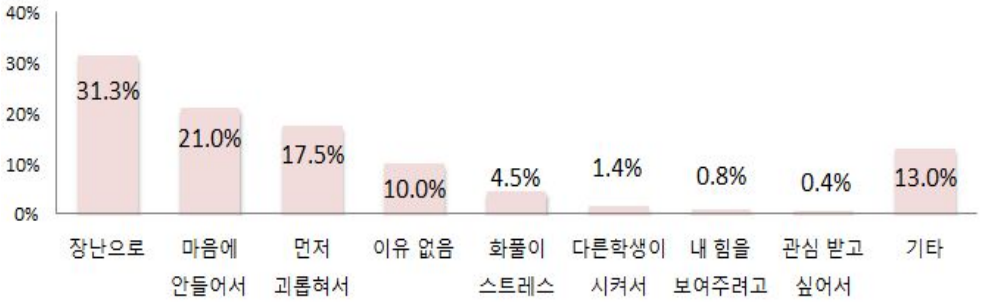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천명으로, 14년 1차 조사대비 4천 명이 감소하였고, 가해응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여학생(0.3%)보다 남학생(0.8%)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해응답률이 높았고, 초 1.0%, 중 0.5% , 고 0.2% 순으로 집계 되었다. 가해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22.6%), 집단따돌림(21.9%), 사이버 괴롭힘(9.1%), 폭행(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학교폭력 집단 가해 응답률

집단으로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이전 조사 대비 6.4%p 감소하였고, 특히 중 ·고생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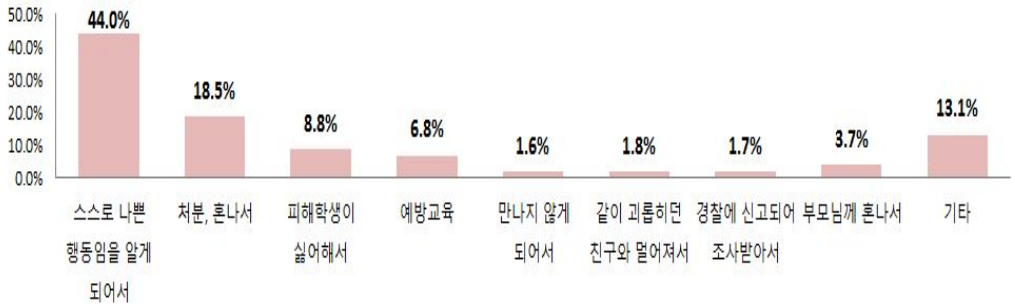


<그림 10> 학교폭력 가해 이유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해이유는 '장난으로',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장난으로'의 응답비중이, 여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그림 11> 학교폭력 가해 중단 이유

가해행동을 중단한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해학생의 23.3%(5천명)은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가해학생 80.6%가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응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8천명, 피해응답률은 1.2%로, 14년 1차 대비 0.2%p 13년 2차에 비해 0.7%의 감소율을 보이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해 응답률은 다소 감소했지만 학교폭력의 또 다른 유형인 집단따돌림이나 언어폭력 및 사이버 폭력은 여전히 그 응답률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2.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정부는 학교폭력의 대책과 해결 방안으로 여러 대응 체계를 이루고 있다. 2014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0] 추진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또래보호 등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 형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며, 학교전담 경찰관을 증원하고, 고 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있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은 2013년에 발표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추진계획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에 처음으로 시작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단체, 병· 의원, 단위학교 등으로 협력 체계 구성되어 각 지자체들이 사이버 상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도 예방 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 개인, 가정, 학교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단위학교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10)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교육부, 20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다.

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삼성생명 재단의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서울대 심리학과 발달심리 연구실, 구 청소년 보호 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① 멋진 우리 프로그램
② 솔리언 또래 상담
③ 내가 지킴이 프로그램
④ 한 번 더 생각해봐 프로그램
⑤ 청소년을 밝고 건강하게 프로그램
⑥ 폭력 및 왕따 예방교육
⑦ 학교 폭력 예방 수업 지도
⑧ 학급에서의 집단 따돌림 예방
⑨ 시우보우 프로그램
⑩ 친한 친구 프로그램 등이 있다.[11)]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된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 기술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소통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상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교별 진단, 컨설팅을 통하여 학교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

11) 이현림 외. 학교폭력 상담의 이론과 실제. p140~142 요약 정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현장 컨설팅은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에 대하여 조언과 보완점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으로서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간편하게 방안을 제시 해주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보급 하고 있고 교과부, 교육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학교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 할 시 현장에 적극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셋째, 청소년들 귀에 쏙 들어올 이 '아주 사소한 고백'은 교과부, 현대해상,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재단이 주최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로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인 만큼, 고민을 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SNS로 사연을 공모하는 것은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연 4회 학교폭력 카운슬링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된다.

넷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주관하여 1박 2일 캠프로 실시된다. 캠프에서는 연극, 춤, 음악 등 예술치료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의 프로그램을 함께 참가하고 진행 하여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조속한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블루밴드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블루는 청소년의 미래, 희망, 꿈을 의미하고 밴드는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글귀가 적혀져 있는 블루 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는 것은 물론 간단한 학교폭력 예방 실천 서약을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 및 그 대응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본의 학교폭력 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또한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이지메(집단따돌림)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폭력 행위와 이지메를 구분하여 정의 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와 대응체계를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폭력 행위의 정의는[12] 자교학생이 “고의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 폭력 행위의 대상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폭력"(교사에 한하지 않고 사환 등의 학교 직원도 포함), "학생 간 폭력"(어떠한 인간관계가 있는 학생 간에 한한다), "대인 폭력"(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 간 폭력의 대상자를 제외), 학교 시설·설비 등의 "재물 손괴" 4형태로 나눈다. 단, 가족 동거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조사 대상 외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시 그 폭력 행위로 부상이나 외상이 있는지 없는 지나, 부상에 따른 병원의 진단서, 피해자에 의한 경찰에 피해 신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다음의 예로 들고 있는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에 해당 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표 5>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

- 지도받은 것에 격분해 교사의 다리를 찼다.
- 교사의 멱살을 잡았다.
- 양호 교사를 향해 의자를 내던졌다.
- 정기적으로 내교하다 교육 상담원을 때렸다.
- 기타, 교직원을 폭행했다.

12)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用語の解説”(文部科学省,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 학생 간 폭력의 사례

- 같은 학교 학생끼리 시비가 벌어져 쌍방이 서로를 때렸다.
- 고등학교 재적학생 2명이, 중학교 때 후배인 중학교 재적학생들을 폭행했다.
- 동아리 활동 중에,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지도로 부르며 청소 도구로 때렸다.
- 놀이나 장난을 가장해 특정 학생의 목을 조른다.
- 양측이 안면에 다른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끼리 말다툼이 되었고, 부상은 없었지만, 몸을 들이받기도 했다.
- 기타,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학생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

<표 7> 대인 폭력의 사례

- 학교 행사에 내빈으로 초청 받은 지역 주민들을 발로 찼다.
-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다 다른 낯선 학생과 다투게 되고, 폭행을 가했다.
- 등하교 중에,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힌다.
- 기타 다른 사람(교사에 대한 폭력 및 학생 간 폭력의 대상자를 제외)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

<표 8> 재물 손괴의 사례

- 교실 창문 유리를 고의로 깬다.
- 화장실 문을 고의로 부순다.
- 보수를 요하는 낙서를 한다.
- 학교에서 기르는 동물에 고의로 상해를 입힌다.
- 학교 비품(커튼, 청소 도구 등)을 고의로 부순다.
- 그 외, 학교 시설·설비 등을 고의로 부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부 과학성의 일본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법, 법률 제71호 2조의 이지메의 정의에 따르면 이 법률에서 "이지메"[13]란 학생에 대해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등 해당 학생과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이 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포함한다)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학생이 심신의 고통을 느낀 것으로 정의한다. 덧붙여 발생한 장소는 학교 안팎을 불문한다.

"이지메"에는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인정되어 조기에 경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아동 학생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일으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서의 이지메는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입장에 서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그 기분을 중요시 한다. 일본은 이렇게 학교폭력행위와 이지메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에 따라 조사 방법 대처방안 등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2-1. 일본의 학교폭력의 실태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부과학성에서 2013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행위와 이지메 등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자료는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한 2013년도 "학생의 문제 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각종 문제에 관한 조사"[14] 에 따른 실태 조사의 결과 이며 조사 항목 초 ·중 ·고등학교의 폭력 행위 및 이지메에 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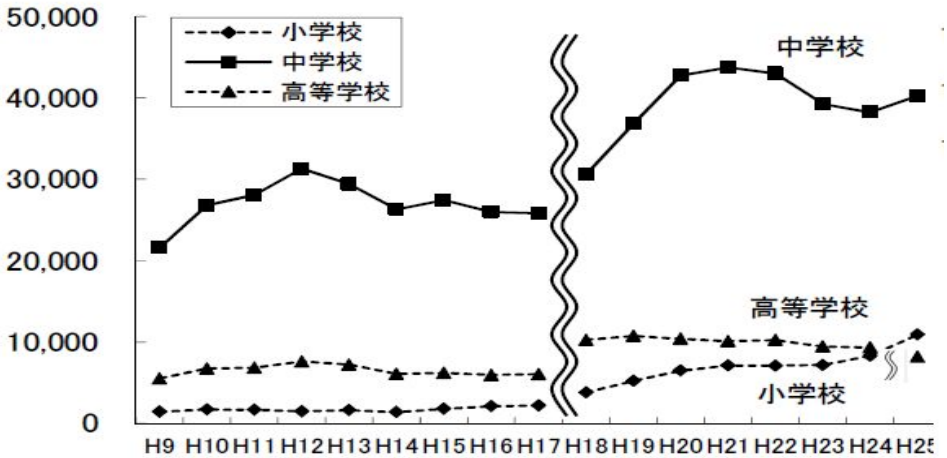
2013년 한해 일본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폭력 행위의 발생 건수는 59,345건으로, 학생 천 명당 발생 건수는 4.3건이다. 고등학교 통신제 과정에서의 발생 건수를 제외하면 59,168건(전년도 55,836건)인 학생 천명 발생 건수는 4.4건(전년도 4.1건)이다.[15]

---

13)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法律第七十一号二, (文部科学省, 2013)
14) 2013년도부터 조사대상에 고등학교 통신제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단순비교는 할 수없다. 즉 고등학교 통신제 과정에 관한 것을 뺀 수치를 참고로써 기재했다.
15) 2006년(헤이세이 18년)도 부터 국·사립학교를 조사 대상에 넣어 이번 조사 결과와 2005년(헤이세이 17년)도 이전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교 \ 년	9年度 (1997)	10年度 (1998)	11年度 (1999)	12年度 (2000)	13年度 (2001)	14年度 (2002)	15年度 (2003)	16年度 (2004)	17年度 (2005)
초	1,432	1,706	1,668	1,483	1,630	1,393	1,777	2,100	2,176
중	21,585	26,783	28,077	31,285	29,388	26,295	27,414	25,984	25,796
고	5,509	6,743	6,833	7,606	7,213	6,077	6,201	5,938	6,046
합계	28,526	35,232	36,578	40,374	38,231	33,765	35,392	34,022	34,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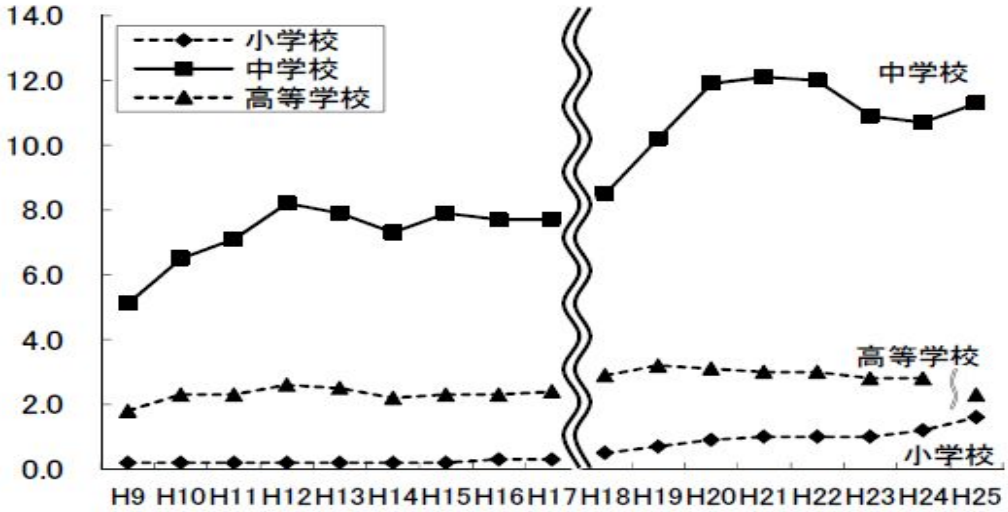
학교 \ 년	18年度 (2006)	19年度 (2007)	20年度 (2008)	21年度 (2009)	22年度 (2010)	23年度 (2011)	24年度 (2012)	25年度 (2013)
초	3,803	5,214	6,484	7,115	7,092	7,175	8,296	10,896
중	30,564	36,803	42,754	43,715	42,987	39,251	38,218	40,246
고	10,254	10,739	10,380	10,085	10,226	9,431	9,322	8,203
합계	44,621	52,756	59,618	60,915	60,305	55,857	55,836	59,345

<그림 12> 폭력 행위 발생 건수의 추이[16)]

16)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文部科学省,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년 / 학교	9年度 (1997)	10年度 (1998)	11年度 (1999)	12年度 (2000)	13年度 (2001)	14年度 (2002)	15年度 (2003)	16年度 (2004)	17年度 (2005)
초	0.2	0.2	0.2	0.2	0.2	0.2	0.2	0.3	0.3
중	5.1	6.5	7.1	8.2	7.9	7.3	7.9	7.7	7.7
고	1.8	2.3	2.3	2.6	2.5	2.2	2.3	2.3	2.4
합계	1.9	2.4	2.6	2.9	2.8	2.5	2.7	2.6	2.6

년 / 학교	18年度 (2006)	19年度 (2007)	20年度 (2008)	21年度 (2009)	22年度 (2010)	23年度 (2011)	24年度 (2012)	25年度 (2013)
초	0.5	0.7	0.9	1.0	1.0	1.0	1.2	1.6
중	8.5	10.2	11.9	12.1	12.0	10.9	10.7	11.3
고	2.9	3.2	3.1	3.0	3.0	2.8	2.8	2.3
합계	3.1	3.7	4.2	4.3	4.3	4.0	4.1	4.3

<그림 13> 1,000명당 폭력 행위 발생 건수[17)]

17)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文部科学省,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교 내외 폭력 행위의 발생 건수는 2013년 59,345건이며 초등학교에서 1,000명당 폭력 행위 발생건수는 1.6건이며 중학교는 11.3건 고등학교는 2.3건으로 이를 통해 중학교에서 폭력 행위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폭력 행위 발생 건수[18)]

	9年 (1997년)	10年 (1998년)	11年 (1999년)	12年 (2000년)	13年 (2001년)	14年 (2002년)	15年 (2003년)	16年 (2004년)	17年 (2005년)
초등학교	1,432	1,706	1,668	1,483	1,630	1,393	1,777	2,100	2,176
	0.2	0.2	0.2	0.2	0.2	0.2	0.2	0.3	0.3
중학교	21,585	26,783	28,077	31,285	29,388	26,295	27,414	25,984	25,796
	5.1	6.5	7.1	8.2	7.9	7.3	7.9	7.7	7.7
고등학교	5,509	6,743	6,833	7,606	7,213	6,077	6,201	5,938	6,046
	1.8	2.3	2.3	2.6	2.5	2.2	2.3	2.3	2.4
합계	28,526	35,232	36,578	40,374	38,231	33,765	35,392	34,022	34,018
	1.9	2.4	2.6	2.9	2.8	2.5	2.7	2.6	2.6

	18年 (2006년)	19年 (2007년)	20年 (2008년)	21年 (2009년)	22年 (2010년)	23年 (2011년)	24年 (2012년)	25年 (2013년)
초등학교	3,803	5,214	6,484	7,115	7,092	7,175	8,296	10,896
	0.5	0.7	0.9	1.0	1.0	1.0	1.2	1.6
중학교	30,564	36,803	42,754	43,715	42,987	39,251	38,218	40,246
	8.5	10.2	11.9	12.1	12.0	10.9	10.7	11.3
고등학교	10,254	10,739	10,380	10,085	10,226	9,431	9,322	8,203
	2.9	3.2	3.1	3.0	3.0	2.8	2.8	2.3
합계	44,621	52,756	59,618	60,915	60,305	55,857	55,836	59,345
	3.1	3.7	4.2	4.3	4.3	4.0	4.1	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9>는 지난 십여년간 일본의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의 추이를 나타낸 것 이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총 건수는 2004년 34,022건 2005년 34,018건 2006년 44,621건 2007년 52,756건 2008년 59,618건 2009년 60,915건 2010년 60,305건 2011년 55,857건 2012년 55,836건 2013년 59,345건으로 증감을 반복 하고 있다.[19] 일본 또한 여전히 폭력 행위의 발생 빈도가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0] 은 일본에서 교내 폭력행위로 인해 검거·보도된 자료이다.

교내폭력 사건으로 인한 검거·보도인원은 2004년에 1,161건 2005년에 1,385건 2006년에 1,455건 2007년에 1,433건 2008년에 1,478건 2009년에 1,359건 2010년에 1,434건 2011년에 1,506건 2012년에 1,608건 2013년에 1,771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초등학교의 검거·보도인원은 70건이고 중학교는 1,569건이며 고등학교는 132건으로 앞의 폭력행위 실태에서와 같이 중학교에서 폭력행위 검거 및 보도인원 또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8)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文部科学省, 2013)
19) 2013년 부터 고등학교 통신제 과정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0)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少年非行情勢"(警察庁, 20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0> 교내 폭력사건의 검거·보도 인원[21)]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수	증감율
초	사건수	14	18	24	22	16	23	26	22	37	56	19	51.4
	보도인원	25	21	27	27	16	32	29	27	54	70	16	29.6
	피해자수	15	23	24	22	22	28	26	25	38	64	26	68.4
중	사건수	754	974	1,025	990	1,101	1,050	1,118	1,168	1,167	1,355	188	16.1
	검거·보도인원	1,022	1,255	1,388	1,245	1,320	1,246	1,320	1,366	1,414	1,569	155	11.0
	피해자수	840	1,155	1,160	1,107	1,197	1,158	1,204	1,308	1,291	1,525	234	18.1
고	사건수	60	68	51	112	95	51	67	80	105	112	7	6.7
	검거인원	114	109	90	161	142	81	85	113	140	132	▲8	▲5.7
	피해자수	69	140	53	118	111	51	68	83	110	124	14	12.7
합계	건수	828	1,060	1,100	1,124	1,212	1,124	1,211	1,270	1,309	1,523	214	16.3
	검거·보도인원	1,161	1,385	1,455	1,433	1,478	1,359	1,434	1,506	1,608	1,771	163	10.1
	피해자수	924	1,318	1,237	1,247	1,330	1,237	1,298	1,416	1,439	1,713	274	19.0

21) 각 칸의 피해자 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해자가 된 사건의 피해자를 말하고, 피해자의 학직은 묻지 않는다. 교사도 포함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1>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 검거·보도 인원[22)]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수	증감율
초	사건수	2	4	11	3	7	8	5	9	6	13	7	116.7
	보도인원	2	4	9	3	7	8	5	9	5	15	10	200.0
	피해자수	2	5	11	3	10	8	5	12	7	16	9	128.6
중	사건수	446	529	540	530	627	648	673	705	668	769	101	15.1
	검거·보도인원	495	555	561	571	629	661	697	725	699	779	80	11.4
	피해자수	515	625	620	609	700	736	744	816	769	892	123	16.0
고	사건수	8	7	6	9	10	8	10	6	9	7	▲2	▲22.2
	검거인원	7	7	6	9	10	8	10	6	12	5	▲7	▲58.3
	피해자수	8	14	8	9	17	8	10	6	9	9	0	0.0
합계	건수	456	540	557	542	644	664	688	720	683	789	106	15.5
	검거·보도인원	504	566	576	583	646	677	712	740	716	799	83	11.6
	피해자수	525	644	639	621	727	752	759	834	785	917	132	16.8

<표 11>은 폭력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력상황 이다. 이에 나타난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의 검거 및 보도 건수를 살펴보자면 2010년 712건 2011년 740건 2012년 716건 2013년 799건 으로 증감을

22)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少年非行情勢" (警察庁, 20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검거·보도건수도 83건 증가로 11.6%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인원도 132명 증가, 16.8%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초등학교에서의 건수는 15건이며 중학교는 779건 고등학교는 5건으로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 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력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지메에 관한 조사이다. 문부과학성 산하 국립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3년 단위로 이지메와 관련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이지메를 한번 경험 한 아이가 계속 이지메를 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특별한 대상이 이지메를 당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며 이지메를 당한 시기와 이지메를 하는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어떤 아이 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내폭력 보다 이지메가 다루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원인은 없고 불특정 다수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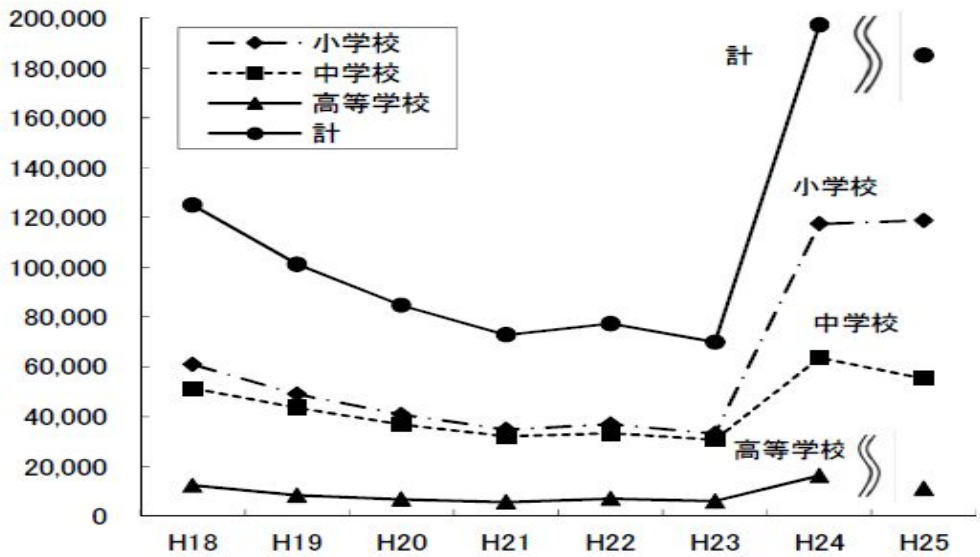
이러한 실태 파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매년 이지메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12>는 문부과학성에서 2013년 조사한 이지메의 발생건수이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지메 인지 건수는 185,860건이며 초등학교 118,805건 중학교 55,248건 고등학교 11,039 건으로 여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이지메 발생 건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23) 서울신문 2012년5월14일 14면. 재인용
24)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文部科学省,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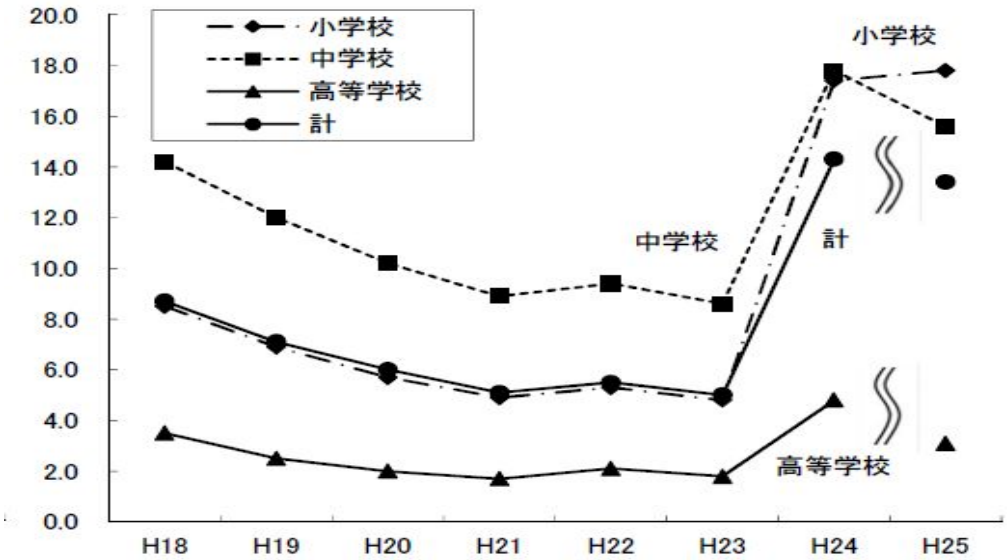
	18年度 2006년	19年度 2007년	20年度 2008년	21年度 2009년	22年度 2010년	23年度 2011년	24年度 2012년	25年度 2013년
초	60,897	48,896	40,807	34,766	36,909	33,124	117,384	118,805
중	51,310	43,505	36,795	32,111	33,323	30,749	63,634	55,248
고	12,307	8,355	6,737	5,642	7,018	6,020	16,274	11,039
특별 지원 학교	384	341	309	259	380	338	817	768
합계	124,898	101,097	84,648	72,778	77,630	70,231	198,109	185,860

<그림 14> 이지메의 발생 건수의 추이[25)]

25)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文部科学省,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8年度 2006년	19年度 2007년	20年度 2008년	21年度 2009년	22年度 2010년	23年度 2011년	24年度 2012년)	25年度 2013년
초	8.5	6.9	5.7	4.9	5.3	4.8	17.4	17.8
중	14.2	12.0	10.2	8.9	9.4	8.6	17.8	15.6
고	3.5	2.5	2.0	1.7	2.1	1.8	4.8	3.1
특별 지원 학교	3.7	3.2	2.8	2.2	3.1	2.7	6.4	5.9
합계	8.7	7.1	6.0	5.1	5.5	5.0	14.3	13.4

<그림 15> 이지메의 1,000명 당 발생률[26)]

26)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文部科学省,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3년 1000명 당 발생 건수는 초등학교가 17.8, 중학교가 15.6, 고등학교가 3.1로 나타나는 등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지메도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내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점점 저 연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표 12> 이지메의 발생 상황[28]

	18年度 2006년	19年度 2007년	20年度 2008년	21年度 2009년	22年度 2010년	23年度 2011년	24年度 2012년	25年度 2013년
초	60,897	48,896	40,807	34,766	36,909	33,124	117,384	118,805
	8.5	6.9	5.7	4.9	5.3	4.8	17.4	17.8
중	51,310	43,505	36,795	32,111	33,323	30,749	63,634	55,248
	14.2	12.0	10.2	8.9	9.4	8.6	17.8	15.6
고	12,307	8,355	6,737	5,642	7,018	6,020	16,274	11,039
	3.5	2.5	2.0	1.7	2.1	1.8	4.8	3.1
특별 지원 학교	384	341	309	259	380	338	817	768
	3.7	3.2	2.8	2.2	3.1	2.7	6.4	5.9
합계	124,898	101,097	84,648	72,778	77,630	70,231	198,109	185,860
	8.7	7.1	6.0	5.1	5.5	5.0	14.3	13.4

27) 2013년 부터 고등학교 통신제 과정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8)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文部科学省,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3>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이지메 관련사건의 검거 및 보도인원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에는 281명 2011년에는 219명 2012년에는 511명 2013년에는 724명으로 200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13> 이지메관련 사건의 검거 및 보도인원[29]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수
초	34	23	18	26	7	38	23	20	36	88	52
중	217	240	352	349	238	228	228	161	384	527	143
고	65	63	90	82	68	47	30	38	91	109	18
합계	316	326	460	457	313	313	281	219	511	724	213

이와 같은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 해 볼 때, 학교폭력과 이지메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폭력행위와 이지메에 따른 사건을 법으로 규제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폭력행위 및 이지메 발생율이 가장 높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9)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少年非行情勢”(警察庁, 20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 일본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이와 같은 교내폭력(교사에 대한 폭력도 포함)과 이지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관계부처 사이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성보다 한 단계 높은 내각부를 신설하고, 청소년 건전육성행정에 관한 종합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이 주체가 되어 내각부, 경찰청, 법무청, 후생노동성 등의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등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시책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30].

문부 과학성에서는 지금까지 학생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 등에 대해 통지를 발송하는 등 폭력 행위를 거듭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제휴한 대응을 추진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구해 왔고, 각 도도부현 지정 도시 교육 위원회 등에 대해 조사 연구 사업을 위탁하는 등 폭력 행위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의 대응, 가정·지역 사회 등 이해를 얻어 지역적으로 같은 체제 정비를 지원하기도 해 왔다[31].

또한 학교와 경찰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한 학교와 경찰 연락협의회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며 아동상담소 등 다른 관계기관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노력에 앞서 지난 수 십 년간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30) “학교폭력 사후대책 방안 마련을 한 토론회 자료집” (2010)
31) “暴力行為のない学校づくり研究会について” (文部科学省,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4>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정부의 학교폭력 대처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32)]

<표14>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대처 활동[33)]

연 도	주요대책
1980년대	학교폭력 전수조사 실시, 교내폭력 방지 통지가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전달
1983년	자연교실 사업 추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 안내 전달
1985년	이지메 문제에 관하여 논의 및 지도
1998년	학교 부적응 대책,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대할 것과 개성을 살리는 교육의 실현, 교원 자질의 향상, 교육 상담 체제의 확충
1995년	스쿨 카운슬러 배치, 이지메 문제에 대책 연수 강좌 실시
2002년	제1회 학생 문제행동 등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 실시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문제행동 등에 대해 지역의 지원시스템을 연구
2003년	학교경찰 연락 협의회, 소년선도센터 등의 기존제도 활성화
2006년	이지메 조기 발견 및 대응지도, 교육위원회의 지원 촉구 안내
2007년	이지메 문제 대응 사례집 발간, 징계와 체벌 등에 관한 유의 사항 안내
2008년	인터넷 상의 이지메와 관련하여 인터넷 및 휴대폰의 바람직한 이용법 안내
2010년	폭력 행위가 없는 학교 만들기 연구회 결성
2013년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법 시행

32)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への適切な対応" (文部科学省, 2010)
33) 김지영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교육정책포럼,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히 정부의 다양한 학교폭력 정책 가운데 '폭력행위가 없는 학교 만들기 연구회(暴力行為のない学校づくり研究会)'는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 해소를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을 마련하고자 결성되어 매년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2013년에 법률로 제정 된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법(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2013年法律第71号)'이다.

다음은 폭력행위가 없는 학교 만들기 연구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대응 방안들을 정리한 내용들이다.[34]

첫째, 조기 발견, 조기 대응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내 지도 체제에서의 기존의 지도 방침이나 지도 매뉴얼 등에 대해 상황에 맞는 것인지, 형식화나 획일화에 의한 기능이 정지하지 않았는지 등을 포함해 규정과 폭력 행위에의 대응의 기준의 명확화 등으로 미연 방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 지도 체제 정비에 있어서는 교직원이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폭력 행위의 조짐의 단계에서 관리자의 보고·연락·상담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는지, 정보의 교환과 분석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보의 공유화나 지도 방침의 확인이 진행되거나 교직원 간에 의사소통 시도가 담임이 혼자서 떠맡는 일은 없는지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해 점검을 요구 하고 있다.

또 폭력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우려되는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서는 스쿨 카운슬러와 스쿨 소셜 워커의 조언·원조를 받거나 관계 기관 등의 전문가를 넣은 팀을 만들어 대응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된 대응 방침이 전 교직원이 주지하고 공통의 이해 아래에서 실천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체제는 인사 운동, 아동 회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정의감, 공정성, 생명의 중요성, 인권 존중, 윤리관의 육성 등을 주제로 도입한 도덕 교육의 내

34) "暴力行為のない学校づくり研究会,暴力行為のない学校づくりについて" (文部科学省,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화, 새로운 관점에서 대응으로서, 인간력을 육성하는 사회기능과 신설, 학급 인원을 뺀 소수의 지도 등도 시도되고 있다.

한편, 체험 활동을 통한 대응으로서 지역의 행사 등 참여로 지역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의 향상, 봉사 활동으로 감사된 체험에 의한 자존감의 향상, 다른 연령층 집단과의 공동 활동을 통한 사회성의 육성 등과도 연계하고 있다.

또 학생의 사회성을 갖추기를 목적으로 한 대인 관계 형성에 주안을 둔 "그룹 인카운터"35)를 비롯한 그룹에 의한 "라이프 스킬 트레이닝36)"이나 다른 연령 집단과의 지원 활동, 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실천되고 있다.

셋째, 차분한 학습 환경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지역·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체제를 확립시키고 있다.

학교가 각각의 사례나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함께 지도에 맞출 수 있도록 가정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거칠어진 아이의 마음 케어에 연결시킬 수 있다. 가정 내 교육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학교, 가정이 협력해 상담적인 배려를 가지고 학생에게 유도하도록 가정 방문 실시 등 학교 측의 보호자의 세심한 접근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사회 내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학교의 학생 지도에 관한 노력의 모습(학교의 일상의 대응)을 지역에 발신하거나 학교 교육 활동에서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 시민 강사나 거리의 선생님으로서 활약하게 하거나 지역의 학교라는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교육력 또한 높이고 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연계만이 아니라 또 관리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역 관계 기관 등의 담당자와 교직원들이 서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의 구축이 중요시 하여 수업 참관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경찰서, 소년 서포트 센터, 소년 감별소 보호 관찰소, 아동 상담

35) "인카운터"는 "만났다"라는 뜻으로 그룹 체험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 자신을 만난다 라는 뜻으로 인간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등이 육성된다. 집단의 플러스의 힘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학급을 마련하고 보호자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6) 자신의 몸과 마음, 생명을 지키는 건강하게 살기 위한 훈련이다. 의사 결정 스킬, 자기주장 커뮤니케이션, 목표 설정 기술 등의 획득을 목표로. 흡연, 음주, 약물, 성 등의 과제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 가정 아동 상담실, 민생 위원·학생 위원, 소년 보도 센터, 민간단체 등의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인 제휴를 함으로써 과제를 안고 있는 학생 지도에서 이러한 관계 기관 등을 적절히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이지메 방지 등을 위한 기본 방침[37]에 나와 있는 이지메 예방 및 지도 방법이다.

이지메는 어느 자녀들도 어느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근본적인 이지메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메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자 모두가 일체가 된 계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이지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학생의 도덕심,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 등 마음이 통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의 소지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지메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등의 요인을 중시하여 그 개선하고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힘을 키우는 관점이 필요하다. 더불어 모든 학생이 안심할 수 있고, 자기 유용함과 충실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생활을 조성하는 것도 미연 방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지메의 문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전체에 인식을 넓히고 지역 가정과 일체가 되어 대처를 추진하기위해, 조기 발견은 이지메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전제이며 모든 성인이 연계해 학생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는 힘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지메는 어른의 눈에 띄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거나 놀이를 가장해 열리거나 어른이 판단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사소한 징후라도 이지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지메의 조기 발견 위해 학교관계자는 정기적인 조사와 교육 상담 실시,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이 이지메를 신고하기 쉬운 체제를 갖추고, 지역 가

37) "いじめの防止等のための基本的な方針" (文部科学省,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과 연계해 학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지메가 확인될 경우 학교는 당장 이지메를 당한 학생이나 시켜 온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괴롭힌 학생에 대해 사정을 파악한 다음 적절히 지도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가정이나 교육 위원회에 대한 연락·상담과,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직원은 평소보다 이지메를 파악할 경우의 대처 방식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의 조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학교나 교육 위원회에서 괴롭히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상의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에 의해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는 관계 기관(경찰, 아동 상담소, 의료 기관, 법무국, 도도부현 사립학교 주관 부서 등)과 적절한 연계가 필요하다.

경찰이나 아동 상담소 등과의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평소 학교나 학교의 설치자와 관계 기관의 담당자의 창구 교환이나 연락 회의 개최 등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양국의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의 공통점과 상이점

양국 간의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은 개인 뿐 만 아니라 또래 집단, 학급, 담임교사, 학교문화, 가정, 사회 환경 요인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일 양국 모두 학교폭력 실태의 공통정인 양상은 집단화, 저연령화, 정서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의 증가의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학교폭력과 이지메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은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집단 따돌림이 속해 있으며, 일본은 학교 폭력을 학생 간 폭력과 교사에 대한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생간의 폭력만이 학교 폭력의 일종이라고 여기는 한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관계기관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은 각 지역의 관계 기관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또한 문부교육성을 중심으로 학교 교직원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이해 시키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카운슬러를 배치하고 임상심리사와 스쿨 카운슬러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자 및 교직 경험자등을 통한 청소년 상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또한 초·중 일관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부터의 학생 관리를 중학교 까지 연계하여 학생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지메에 관련한 대응체계 또한 체계적이다. 일본정부는 이지메를 학교폭력의 범주보다 큰 또 하나의 문제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학교상담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상황의 문제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시점을 찾아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지메를 조기 대응 하는 모습 및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3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의 체계화

학교폭력은 조기 발견이 가장 예방 효과가 큰 대응책 중의 하나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 및 또래 집단 사이의 상호 연대감을 강화시켜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개별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한명 한명의 문제들에게 집중하여 상담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자존감, 공격적 성향, 집안문제, 각 개인의 어려운 점들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상담활동에 적극적인 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여러 프로그램 들을 도입하여 학교 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상담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중간자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자존감 증진' '의사소통 기술 증진' '학교폭력의 심각성 이해' '주장훈련 포함 대인관계 기술 증진 및 지지망 확장' 등 피해 학생의 피해 요인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 '대인조망능력 증진, 공격성 및 충동성 조절 등 가해학생의 폭력 유발 요인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영역 데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임교사로서 이러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각 조회시간이나 종례시간, 학급에서의 회의시간 등을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며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이때의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믿을 만한 상담자로서, 문제가 발생 했을 시에는 해결자로서 그 분야와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코치 해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38)

학교 폭력의 예방 프로그램의 방법 또는 형식으로는

첫째, 청소년 폭력에 관한 여러 자료읽기가 있다. 이 자료에는 문헌 자료,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가 포함 된다.

둘째, 학교폭력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쓰기가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마음의 치료로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역할 바꾸기 방법이 있다. 역할 바꾸기는 대인조망, 대인관계 기술 향상, 카타르시스 등의 효과를 가질 것 이다.

넷째, 말하기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것은 역할 바꾸기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타인의 감정 수용, 대인관계 향상 등의 효과를 갖는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 등을 친구들 앞에서 말하도록 함으로써 치유

38) 이윤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원리와 방법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공동학술회. 2013. p.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험을 들음으로써 상호간 이해와 공감능력의 향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다.

다섯째, 반 친구지원자 연결이 있다. 교사는 각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관찰 하고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아무리 함께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때 반 친구지원자들은 놓친 많은 부분들을 메워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의 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 시 주제로는 자기주장 기술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자기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자아 존중감 향상, 충동성 조절, 부모나 형제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억압당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자기감정 표현 등이 있다. 위 대부분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예방 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서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되기도 하고, 피해학생이 복수심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한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의 공통점으로는 주변의 관심이나 애정을 갈구하고 있으며, 사랑이나 관심 인정 등을 받아 본 경험이 적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학생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져 제대로 된 가치관의 확립, 또한 충동성과 공격성 등을 억제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학생의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공감하여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줌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의 상태에 맞추어 상담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문제를 어른들과 함께 해결 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 학생의 사회 적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가해자에 대해 분노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분노를 자연스럽게 치유하도록 도와 또 다른 가해 학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반면에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은 경우 자신이 못나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생 스스로가 온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여 이제는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고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왜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심리적 정서적인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세세히 상담하고, 가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해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폭력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가해학생의 행동의 원인에 따른 해결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에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폭력을 행하는 것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 부적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알게 하며 폭력의 비정당성과 자신의 행동과 행위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을 하여야 한다. 폭력의 행동 패턴의 원인이 가족관계의 문제 일 경우 가족 상담과 부모상담 및 치료를 통해 가해학생의 행동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폭력의 환경적 요인 개선 및 지역연대 강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정· 학교 ·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의 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학교폭력을 학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관련기관들이 연계하여 업무를 맺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스쿨카운슬러' '스쿨소셜워커'와 같은 지역자원 활용이나 각 교사들을 시민강사로 활용하여 각 '지역의 학교' 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정환경은 학교폭력의 일차적 요인으로 가정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부모의 역할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청소년발달에 따른 양육 프로그램, 대화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학교나 각 지방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연관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연결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 내의 구성원간의 문제는 보다 접근이 쉽도록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 내의 불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결손에 따른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정인 상태로 판단 될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로 진행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정보망을 활용하여 반찬서비스, 자원 봉사, 숙제 및 가사 도움 등의 손길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 알선 등을 비롯한 지역 내 사회 및 각종 종교 단체를 통하여 한 부모 가정의 후원을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한다[39]

학교의 대표적인 권위주의적이며 학교를 등급을 메어 성과급을 주는 관료주의적 행정이 만연해 있는 현재의 실정으로는 학교 안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하여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학교가 사건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권위 상실, 학교의 위상 문제, 관리 및 책임 소홀, 인사상의 불이익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려 있는 현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개인적 이기심 및 경쟁심만을 부추기며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성적위주의 교육의 문제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예행연습이 아닌 학교는 단순한 줄세우기 집단으로 전락하여 남을 이해라고 돕고 함께 가는 마음이 아닌 남을 누르고 경쟁하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따돌림을 시켜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

39) 지순덕, 청소년학교폭력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4), p1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현 교직원들의 인식 문제 이다. 문제가 생기면 인사에 반영 될 것만 생각하여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학교의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쉬쉬 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특별히 담임교사는 학생 한명 한명을 눈여겨보아야 하며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자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 및 학생 상담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현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그 권한은 아직까지 미지수이며 특별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교사의 일반적인 행정업무 등을 삭감하고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생상담 활동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범주 내 만이 아닌 학교 내외 및 지역사회 모든 곳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 환경을 보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가치관의 확립이다. 인간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예절 교육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인간의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해 환경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공터관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및 각종 매체에 의한 청소년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피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메스컴의 폭력성 및 잔인성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현 시대에 영화나 TV 및 여러 인터넷 매체의 동영상 등도 강력한 규제 및 제제를 시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규제에 따른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 육성 및 안전한 청소년들만의 휴식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의 학업문제, 가정문제, 친구문제 등으로의 스트레스 해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며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문화를 인정하여 올바르게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 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을 학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이미 사라지는 추세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 학교와 학교 밖의 안전망을 구축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외의 학교폭력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분석 및 그 해결 또한 정부에게만 의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각 관할 교육청,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홍보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에도 학교가 먼저 문을 개방하고 나온다면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학교는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아 보다 긴밀하게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학교 안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단체 및 여러 종교 단체 지역 단체 자원 봉사 단체등과 협력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전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학교 및 정부 민간단체가 연계 하여 책임이 정부만이 떠안을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 지원 및 검증된 전문적인 단체에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를 맡기도록 해야 하며 그 에 따른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강화

학교폭력을 위한 건전한 학교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제도가 수립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상담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상담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상담교사의 업무권한, 업무내용 등을 먼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정규직 전환이나 학생 수 당 배치 하는 상담교사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한 부모 가정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정환경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남에 따라 가정과 학부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것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움과 지원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연계되어야 만 한다. 이러한 정책이 수립된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활발해지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행 법률은 주로 가해학생의 사법적 처리 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현행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에는 학교폭력에 초점을 맞춘 법률은 없고, 피해학생에 대한 구조 및 보해 대책 또한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법률아래 보호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각 대책을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가정 과 학교 각 지역사회가 연계 하여 지역의 특성 및 형편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교 폭력이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연계 하여 해결 해 나가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이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의 학교 폭력현황 및 대응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자라는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과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교 폭력의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양국 간의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은 개인 뿐 만 아니라 또래집단, 학급, 담임교사, 학교문화, 가정, 사회 환경 요인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 모두 학교폭력 실태의 공통된 양상은 집단화, 저 연령화, 정서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의 증가의 현황을 알 수 있었으나, 대처방안 및 대응 체계에서는 양국은 다른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이지메(집단 따돌림) 현상이 한국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과 이지메 자체를 구분하여 지도 및 관리 하고 있으며 학생폭력 뿐만 아니라 교사 폭력 및 대인 폭력 기물파손 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학교폭력 범주 안에 따돌림을 포함 시키고 있어 그 대응체계나 문제 인식 면에서 일본보다는 다소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집단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일부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좀 더 세분화 되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학교폭력예방법 중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되는 것은 조기 발견 및 미연의 방지 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또한 지금 보다 더 교사 및 또래 집단 사이의 상호 연대감을 강화시켜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개별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한명 한명의 문제에 집중하여 상담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자존감, 공격적 성향, 집안문제, 각 개인의 어려운 점들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파악 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상담활동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여러 프로그램 들을 도입하여 학교 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국의 실태 조사 분석결과 양국 모두 학교폭력이 급증 하는 시기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학생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의 문제행동에 주목을 해 집중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 행동이 급증하는 시기에 '초 중 일관 프로그램'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시기의 아이들을 관리 하고 있다. 한국 또한 문제가 급증하는 중학교시기를 집중 관리하는 초·중 연합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학생 개인별의 특징과 문제 아동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 에서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정· 학교·협력기관 및 지역사회의 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학교폭력을 학교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각 관련기관들이 연계하여 업무를 맺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스쿨카운슬러' '스쿨소셜워커' 와 같은 지역자원 활용이나, 각 교사들을 시민강사로 활용하여 각 '지역의 학교' 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보다 30년 이상 앞선, 1980년대부터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해가고 있는 일본의 대처방안 및 예방법이 전부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최초 발상지인 만큼 한국의 실정에 적용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점들은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례를 살펴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바르고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이며 그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발상지인 일본의 학교폭력 및 이지메의 실태와 대응체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제도들을 한국의 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에 맞게 정책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학교폭력의 현재의 현황과 실태 분석에 중점을 두었기에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들의 실태와 파악 및 예방 법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또한 더욱 상세히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희복 외 5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제" (부산 : 경성대학교, 2013), pp.15-24.

조종실 외 1인,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서울 : 학지사, 2012)

김대유, 김현수 "학교폭력 , 우리아이 지키기", (서울 : 노벨과개미, 2006),pp.45.

徐夏錫,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 (서울 : 한빛문화, 2008), pp.29-30, pp.58

이현임 외 2인, "학교폭력상담의 실제",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pp.140-142

Melissa Allen Heath · Dawn Sheen ""(서울 : 학지사, 2013)

박종철, "교실 평화 프로젝트" (서울 : 양철북출판사, 2013), pp.38-41

문용린,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 학지사, 2007), 머리말 참조

나이토 아사오, “이지메의 구조” (서울 :한얼 미디어, 2013)

Sameer Hinduja · Justin W. Patchin, “사이버폭력” (파주 : 정민사, 2013)

천세영 외 7인,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서울 : 학지사, 2014)

조남두,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서울 : 동문사, 2014)

박효정 외 2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서울 : 한국 교육 개발원, 2007)

한유경 외 13인,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서울 : 학지사, 2014)

김종운, “학교 현장에 맞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서울 : 학지사 2013)

Bucker, J. C., Mezzacappa, E., & Beardslee, W. R. (2003)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youths living in poverty: The role of self -regulatory process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39-162.

2. 학술지

유형근, 손형돈,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적·인성 평가 방안 모색" (제15회, 영남대·충남대·한국교원대·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공동학술회의 2013), pp.45-62

「한국범죄심리연구」제8권 제3호 (통권 제 18호,2012), pp153-172

김미란, “일본의 학교 폭력 현황과 대응시책”(교육정책포럼, 2005)

정우일,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 범죄 심리연구)

김지영,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방안”(교육정책포럼, 2012)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用語の解説”(文部科学省, 2010)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への適切な対応" (文部科学省, 2010)

暴力行為のない学校づくり研究会 “暴力行為のない学校づくりについて” (文部科学省, 2011)

"いじめの防止等のための基本的な方針" (文部科学省, 2013)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文部科学省, 2013)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児童生徒課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文部科学省, 2014)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少年非行情勢” (警察庁, 2014)

3. 논문

백순근(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형성요인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池順德(2004), "青少年 學校暴力 現況과 對處方案에 관한 硏究",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金恩英(1997),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崇實大學校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한현규(1996), "학교폭력 억제를 위한 생활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보순(2006), "청소년 학교폭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Freud, S. (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in psycboanalysis. New York: Norton.

Marcia, J. E. (1980). Ego identity development.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bology. New York: Wiley.

Marcia, J. E. (1994). The empirical study of ego identity. In H. A. Bosma, T. L. G. Graafsma, H. D. Grotevant, & D. J. De Levita (Eds.), Identity and development. Newbury Park, CA:sage.

4. 자료

(1) 인터넷 이용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교육부(www.moe.go.kr)

일본 문부과학성 (www.mext.go.jp)

일본 경시청 (www.keishicho.metro.tokyo.jp)

Collection @ chosun